

‘제주 4·3’ 총선 이슈로 재점화 조짐

미래통합당 제주 예비후보들 4·3특별법 개정 촉구
 원내대표, 오는 20일 국회에서 유족들과 면담 계획
 민주당 예비후보 진영도 특별법 개정 최우선 공약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제주지역 보수 야당의 후보들이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으로 적극 내걸면서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여야의 4·3관련 정책 대결이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지만 집권 반환점에 이르는 동안 국회에서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2017년 12월 상정된 지 2년이 넘도록 법안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여야의 정쟁으로 법안 심의가 계속 미뤄져왔고, 4·3 법안은 여야 민생법안 등에 번번히 밀려 제대로된 논의도 이뤄지지 못했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삼고 제주지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법안 처리

에 주력해왔으나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제주4·3 유족들은 국회 앞에서 상복 집회까지 열며 20대 국회를 향해 법 개정을 눈물로 호소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이 통합해 출범한 미래통합당의 예비후보들은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총선에 나섰다. 제주의 숙원 과제인 4·3을 적극 내세움으로써 국민의 표심을 얻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4연속 내리 제주 지역구를 민주당에 내준 보수 야당이 이번 총선에 사활을 걸며 여당에 대한 대항 카드로 4·3을 들고 나온 모양새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유족들의 아픔을 보듬어줄 수 있는 4·3 특별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로 삼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제주시갑의 고경실, 김영진, 구자현, 제주시을의 부상일, 강승연, 서귀포시하용진 예비후보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에서 당 차원의 힘을 실어줄지 주목된다.

미래통합당은 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주선으로 심재철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4·3 유족회의 면담도 가질 예정이다.

다만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점과 논란이 되는 과거사 인식을 극복할 수 있는 지가 관건이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17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가 본격화 된다”며 “미래통합당의 출범이 진정 국민을 위한 새로운 보수의 시작이라면,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적 이합집산이 아픔을 입증할 절호의 기회다. 과거 미래통합당 전신인 정당들의

권위주의 정권이 조래한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위한 과거사본정리법 처리를 통해 과거와의 단절을 입증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예비후보들은 4·3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를 최우선 공약으로 꼽고 있는데 가능한 20대 국회 내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고민도 엿보이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현역 국회의원인 오영훈 제주시를 예비후보는 “남은 20대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총선 승리를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제주시갑 문운택 예비후보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 채택”을 제안했다. 제주시갑 박희수 예비후보도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제주시을 부승찬 예비후보는 “4·3 영화를 만들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야”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서울=부미현기자

“정부 믿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시길”

문 대통령, 18일 국무회의서 경제 활력·일상 복귀 등 당부



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문재인(사진)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공포와 불안이 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며 국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 복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하고 있고 방역에 안정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경제를 살리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며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체계와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정부의 대응을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정부의 선제적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의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 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청와대=부미현기자 bu888@ihalla.com

‘코로나19’ 1인 격리병실 확보 추진 도, 의료기관 8곳과 민·관 협조체계 구축 논의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위험상황에 대비해 도내 의료기관 8곳과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병원 내 확진자 발생을 대비해 입원환자의 1인 1실 수용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감염병 2차 전파 방지와 노출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 2층 사 보건건강위생과 회의실에서 도내 의료기관 8개소 관계자들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관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에는 ▷확진자 접촉환자 대응계획 ▷민·관 협조체계 사전 구축 ▷방역 자원지원 및 투입계획 마련 ▷대체인력 확보·투입 계획 수립 등이 담겨있다.

도는 앰블런스 확보 등 구체적인 이송계획을 수립하고, 도·보건소·의료기관 간 업무 담당자와 총괄연락체계를 재정비해 신속하고 긴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수용 병실 내

감염방지 및 의료인력 보호 등을 위해 방역복, 고글, 의료용 고무장갑, 소독약 등 방역물품을 적극 확보하고, 확진자 발생 시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공백에 대비한 인력 확보·투입 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현재 도내 감염병 검사 건수는 114건으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만 입도자를 대상으로 발열감시를 진행한 결과 총 676명이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이중 일부 환자는 병원 진료 등이 이뤄졌으나 확진자는 없었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교부받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에 나섰다. 도는 지난 5일과 14일 1·2차 교부를 통해 총 2억4000만원의 특교세를 지원 받았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공공시설에 표준디자인 제주도, 통일·일관성 위한 표준디자인 개발용역 착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내 공공디자인의 통합디자인이 필요한 공공시설물에 대해 분야별 표준디자인의 연차적 개발을 위한 ‘202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용역’을 발주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제주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기본 방향에 따라 2018년 공공디자인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의 연차적 개발 로드맵(2019~2021년)을 수립했다. 이번 용역은 연차적 로드맵에 의한 공공시설물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별 수요조사를 통해 자전거 보관대, 현수막 게시대 등 공공시설물을 선정해 오는 10월 중 완료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놀이동산으로 변한 1100고지 휴게소

18일 한라산 1100고지 기온이 영하 4℃까지 내려간 가운데, 많은 도민·관광객들이 설국(雪國)으로 변한 1100고지 휴게소 등 한라산 중산간을 찾아 눈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도는 대상 공공시설물에 대한 현황 및 도내의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공공디자인 자문단 구성을 통한 심도 있는 토의 및 검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추

진 매뉴얼 및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개발된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의 실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은지기자

태양광 발전

자가용PPA 제도를 아십니까?

우리집 여유공간에 태양광 설치

↓

전기요금 “확” 줄이기

↓

쓰고 남는 전기는 한전에 팔기

↓

20년간 7천만원 이득

한전 계약에 의한 20년 전기판매 보장

지금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공사실적 1위
 새해에도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20년간 7천만원 이득*은 태양광 발전설비 18kW 설치, 주택용 전기사용, 월평균 400kWh 전력소비, 월평균 1,782kWh 전력생산, 자가용 PPA계약 체결의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입니다.
 (단, 전기요금 절감액 및 전력판매 수익은 발전용량, 소비패턴, 기상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PA는 Power Purchase Agreement의 약자로 *전력수급계약*을 의미합니다.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usolar.co.kr